

다시 불붙은 패닉바잉... 곳곳서 '억, 억' 강남 신고가 행진

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 21억 거래
두달전 19.5억 대비 거래가 1.5억 ↑

압구정동 현대3차, 대치동 은마 등
실거래가 한달새 1억원 가량 상승

“올 매매 3%, 전세 3% 상승 전망
6월 이후 매매 상승세 이어질 듯”

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서울
강남을 비롯한 주요 아파트값이 연일
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
있다.

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
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
지(전용면적 59㎡)는 지난달 21억원에
거래됐다.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19억
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1억5000
만원 오른 신고가다.

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(전용



실거래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 중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. /정연우 기자

면적 85㎡)도 지난달 37억원에 팔리며
신고가를 경신했다. 래미안퍼스티지
(전용면적 84㎡)는 지난달 30억9000만
원에 거래됐다. 1년 전인 제작년 12월
27억원에 팔린 가격보다 3억원 가까이
올랐다.

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들쭉이 고

다.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(전용면적
82.5㎡)는 지난달 24억원, 대치동 은마
(전용면적 84.43㎡)는 23억5000만원에
거래되며 실거래가가 1개월전보다
각각 1억원 가량 상승했다.

한국부동산원(옛 한국감정원)에 따
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

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.90% 오른 가운
데 서울은 0.26% 올랐다. 강남4구는 서
초구가 0.42%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
남구(0.29%), 송파구(0.27%), 강동구
(0.22%)가 뒤를 이었다.

현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“매
물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은 아니지만 래
미안퍼스티지 등 신축 아파트 위주로
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편”이라며 “전세
는 물건이 거의 없어 구매를 알아보는
수요자들이 더 많다”고 전했다.

전세품귀 현상으로 매매전환 수요자
가 늘면서 12월 들어 서울 매매 거래량도
급증했다.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12월
거래량(주택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
일)은 3790건을 기록 중이다. 이미 11월
거래량(6277건)의 절반을 넘어섰다.

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 이
후 전세난에 치진 무주택자들이 매매로
돌아섬며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
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

나19)에 대응하기 위한 초저금리 기조
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도 주된 이유
중 하나다.

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
은 “2021년 주택시장 매매가는 3%, 전
세가는 3% 상승할 전망”이라며 “올해는
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다소 줄겠지만 여
전히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
승 가능성이 높다”고 예측했다.

그는 이어 “또한 상반기는 다주택자
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출회되면서 매
매가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6
월 이후는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져 올
해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
높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오는 6월부터
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
다주택자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5월
말까지 매물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.

한편 정부는 주택난 공급을 위해 설
연휴 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
이다. /정연우 기자 ywj964@metro.co.kr

집단감염 확산... 누적 사망자 1000명대

최근 한달간 440여명 급증

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
증(코로나19)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
명을 넘어섰다. 지난 2월20일 코로나19
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10개월
만이다.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처음
발생하고 약 1년 만에, 2월20일 코로
나19 첫 사망자가 나오지 10개월 보름 만
에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.
사망자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급증
하는 데는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. 고
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
감염이 확산된 영향이 컸다.

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
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
전대책본부 회의에서 “최근 한 달 동안
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440여
명까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도 오늘
1000명을 넘어섰다”고 말했다.

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
자는 26명 추가 발생해 누적 1007명으
로 집계됐다. 특히 서울에서는 11명이
사망하며 역대 최대 사망자가 나왔다.
치명률은 1.55%로 전일(1.53%)보다 높
아졌고, 위·중증 환자 역시 386명으로



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
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
전대책본부(중대본)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
있다. /뉴스1

역대 최다치다.

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
이 시작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다. 12월
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환자가 481명으
로, 전체의 47.7%를 차지한다. 2월부터
11월까지 9개월 간 526명이 숨졌는데,
불과 한 달 만에 2배가 늘어난 셈이다.

요양병원 발병과, 병상수 부족으로
인한 의료 대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.
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최근 3
주간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 등 시설
및 병원에서의 사망자가 201명으로 전
체 55%를 차지한다. /이세경 기자

내달 백신 접종... '콜드체인 확립' 초비상

영하 70도 운송, 영하 20도 보관 등
제품별 조건 달라... 체계확립 관건

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종 코
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
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체
계 확립에 비상이 걸렸다.

영하 70도에서 운송해야 하는 화이자
백신이나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하는 모
더나 백신의 경우, 국내에서 한번도 해보
지 않은 저온유통체계(콜드체인)를 갖춰
야 하기 때문이다. 한달 안에 이 체계를
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, 지난해 인플루
엔자 백신과 같이 일부 물량 폐기의 위기
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

5일 문재인 대통령은 “코로나19 확산
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
습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이 고비를 잘 넘
기면,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
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”
이라고 낙관했다.

방역당국은 2월 부터 고령자와 의료
기관 종사자 등 우선 접종권장대상자를
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

11월 이전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
다. 이를 위해 오는 8일 ‘코로나19 예방
접종 대응 추진단’을 출범하고, 세부 접
종 계획을 마련한다.

방역 전문가들은 접종 계획에서 가장
중요한 부분은 백신 운송·보관 체계 확
립이라고 입을 모은다.

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
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보
관 적정 온도는 2~8도로, 독감 백신과
크게 다르지 않다. 하지만 2분기 부터
도입되는 mRNA 백신은 냉동 유통·관
리가 필수적이다. 특히 화이자 백신의
경우에는 영하 70도 정도에서 운송, 보
관해야 한다. 이 보관, 운송 조건을 지키
지 못한다면, 충분하지 않은 물량 중의
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
있다는 지적이다. 국내에선 지난해 독
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2~8도 콜드체인
도 유지하지 못해 106명분의 백신을 폐
기처분 한 바 있다.

국내 백신 개발 제약사의 임상 시험
책임은 맡는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
염내과 교수는 “코로나19 백신 적정 온
도는 영하 70도, 영하 20도, 냉장온도

등 제각각이다. 지난 독감 백신 유통 중
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, 제대로 준비
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
수 있다”며 “국내에서 운반할 때도 온도
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
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접종 기관에도 냉동보관소 등 적절한
보관환경이 마련돼야 하며, 백신을 안
전하게 해동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교
육받은 전문 의료진도 필수다.

방역당국은 다음 달 실제 접종에 대
비해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
께 ‘코로나19 백신 유통·보관 가이드라
인’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저온 냉동고
도 접종 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
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“처음 접종
하는 mRNA 백신은 현재 대학병원 등
접종센터를 설치해 접종하는 것으로 계
획하고 있다”며 “준비 시간이 가장 오래
걸리고 난도가 있다. 전문가의 의견을
수렴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정리가 되
면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
진행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이세경 기자 seilee@

엔씨소프트-CJ ENM, 연내 합작법인 설립

콘텐츠·디지털플랫폼 협력 MOU

엔씨소프트가 CJ ENM과 콘텐츠 사
업을 위해 손잡고 연내 합작법인을 세
운다.

엔씨소프트는 CJ ENM과 콘텐츠 및
디지털 플랫폼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
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5일 밝
혔다. (관련기사 4면)

양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
이다. 합작법인에서는 엔씨소프트의 I
T 기술력과 CJ ENM의 엔터테인먼트
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다양한 콘텐

츠 사업을 전개한다.

엔씨소프트 김정하 엔터사업실장은
“양사가 보유한 역량이 다른 만큼, 시너
지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
거라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CJ ENM 음악콘텐츠본부 이선 음악
사업부장은 “CJ ENM의 콘텐츠 제작
및 사업 역량과 엔씨소프트의 IT플랫
폼 기반 사업 역량을 합쳐 테크놀로지
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 엔
터테인먼트 산업의 트렌드를 리드해 나
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/김나인 기자 silkni@

한진칼 지분 31% 불과... 단독 정관변경 어려워

>> 1면 '국민연금 판지에...'서 계속

하지만 한진칼은 현재 31.13%의 지
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정관
변경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것
이다.

아울러 2대 주주인 국민연금
(8.11%)조차 이번 임시 주총에서 반대
표를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나
인수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
다.

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
회는 대한항공 임시 주총에서 정관 일

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
키로 했다.

당초 찬성표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
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
이다.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정
관 변경안의 가결 여부는 물론 아시아
나 인수의 향방도 알 수 없게 됐다.

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
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. 하지만 대한
항공의 현 주주 입장에서 이번 유상
증자로 상당한 주주 가치 희석이 발생하
다는 점이 반대 의결권 행사 요소로 꼽
혀왔다.

대규모 신주발행으로 국민연금을 포
함한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가 하락하게
되기 때문이다.

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행동주의 사
모펀드(PEF) KCGI가 제기한 한진칼
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
주발행 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아시아나
인수의 첫 고비를 맞은 바 있다. 당시 법
원은 이와 관련 “한진칼의 신주 발행이
아시아나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
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
다”며 가처분을 기각했다.

/김수지 기자 sjkim2935@